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교황 "기아 존재는 인도주의 범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6일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세상에 굶주림과 기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교황의 비난은 기후 변화와 분쟁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결과라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 시스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 식량 시스템의 3분의 1이 온실 가스 배출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의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한 가족이라는 단결을 저해하는 체계적 불평등에 맞닥뜨리게 하고 있다." 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가 울부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화의 무책임한 사용과 남용을 통해 우리가 가하는 피해 때문" 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자연을 불모화시킬 정도로 계속 이용, 실제 사막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적인 사막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면서 기아 스캔들을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유엔 보고서는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최대 1억6100만 명이 새로 기아에 직면했다며, 그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빈곤, 소득 불평등, 높은 식비 때문에 30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에 접근할 수 없다." 며 "기후 변화와 분쟁은 이러한 재앙의 결과이자 원동력" 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무려 8억1,100만명이 기아에 직면했다.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30년까지 만성 영양 부족에서 1억 명의 인구를 구제하려면 매년 140억 달러가 더 필요하고, 2030년까지 유엔의 기아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3배의 액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대한 마음의 힘을 활용하라

우리의 마음자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무한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필코 이겨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한다 함은 포기와 좌절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가는, 긍정적이요 희망적인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까닭은 덧없이 흘러가며 살고, 허망하고 불행하게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참된 '나' 를 찾고 멋있게 살고자 함입니다. 한없이 넓고 깊고 완전한 시방의 마음세계. 나도 그 마음을 주인 삼고 벗삼고 스승삼아, 마침내는 내 마음의 보배창고를 열어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쓰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보배창고를 발견하고 또 열 수 있는 것인가? 이 답 또한 한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혼자서 어렵게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장원급제를 빌면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며칠 후 병의 목 부분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어머니는 해몽가의 집을 찾았으나 해몽가는 외출중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기다릴까 망설이고 있을 때,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해몽가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해몽을 할 줄 알아요. 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는데, 꿈에 병의 목이 부러지면서 두 동강 나는 꿈을 꾸었다네. 그게 무슨 꿈인가?"

"아드님이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꿈입니다."

기운이 쏙 빠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진짜 해몽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와 함께 따님의 해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해몽가가 말했습니다.

"빨리 되돌아가서 해몽한 딸아이의 뺨을 좌우로 세 대씩 때리고, '꿈을 내 놓으라' 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해몽해 드리지요."

그 말대로 하여 꿈을 되찾은 도령의 어머니는 해몽가에게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병 목이 부러져 두 동강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병 목이 있으면 한손으로 병을 쥐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목이 부러져 없어지면 한손으로 쥐고 다니던 병을 두 손으로 받치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아드님이 모두가 떠받드는 사람이 된다는 암시입니다. 틀림없이 아드님은 장원급제를 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관세음보살' 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아들은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해몽가 딸의 해몽에 집착하여 어둡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에너지를 아들에게 보내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몽가의 새로운 꿈 풀이를 믿고,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밝고 고요한 에너지가 염력(念力)이 되어 아들을 보호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기운을 뿜어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마음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물질의 풍요와 감각적인 즐거움을 따라 흘러가는 한 생각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한 송이 연꽃을 피우고 마음의 고향을 향하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요, 이웃과 나를 함께 살리는 길이며, 이 지구를 건강한 생명체로 순화시키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 지구, 우주 자연을 변화시키는 역동성과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바른 숨결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조화입니다. 나도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내 마음 따라 바뀝니다. 산천초목과 지구의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내 마음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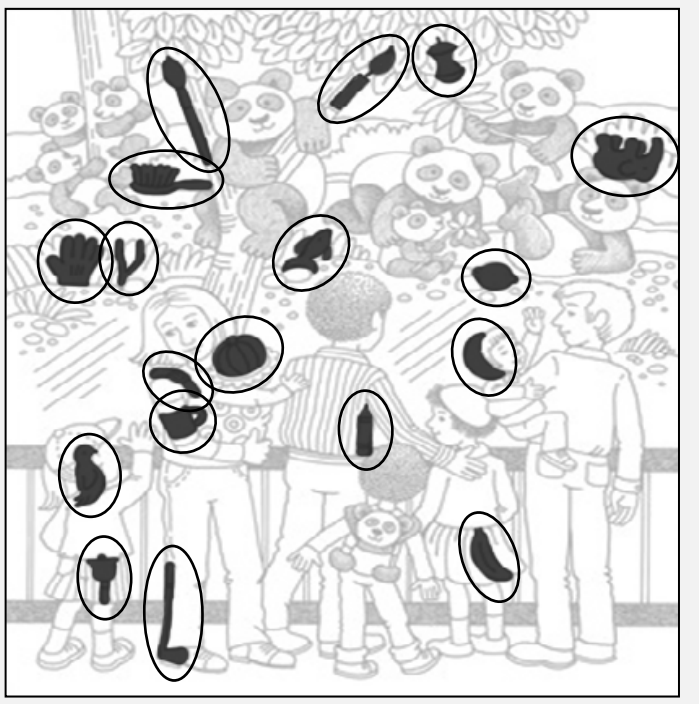
-혜국 스님-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